



신안군 지도읍 앞바다에서 장대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 김 양식 어민들이 김을 채취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신안군 지도읍 점암선착장에서 진행된 수협 위판에서 김 가공업자들이 경매 전 수확된 물김의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



신안군 지도읍 앞바다에서 장대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 김 양식 어민들이 김을 채취하고 있다. 사진 오른쪽은 신안군 지도읍 점암선착장에서 진행된 수협 위판에서 김 가공업자들이 경매 전 수확된 물김의 상태를 점검하는 모습.

“41년 김 양식 인생 중 역대 최고”...어민들 ‘함박웃음’

“우리가 생산한 김이 한류 열풍에 기여하고 있단게 그동안의 노력, 고된 몸 두 보상 받는 거 같아 오재부요.”

지난 달 28일 오전 9시께 신안군 지도읍 봉리 점암선착장. 11급 소형 어선을 타고 20분 가량 들어가자 어의도와 신풍도 사이 드넓은 바다 위 부유식 김 양식장이 눈 앞에 들어왔다. 위판 시간에 맞추기 위해 새벽 5시부터 출항한 김 채취선들은 양식장 사이사이를 떠나들며 물김 채취에 한창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장대비가 내리는 곳은 날씨 속 이어진 고된 업무에도 김 양식

업자들과 작업자들 사이에서는 들뜬 흥분이 었보였다. 올해 역대 최대치를 찍은 김 값 덕분이다.

김 양식 어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만도 하다. 그동안 고품질 김을 생산하기 위한 노력이 ‘K-푸드’ 열풍의 주역으로 자리매김했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1시 열린 수협 위판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할 수 있었다. 총 5척의 김 채취선이 물김 총 400장(1장 120g)을 위판에 내놓았다.

우비와 우산을 쓴 김 가공업자 20여명은 물김을 실은 배 사이를 떠나 들었다.

●신안군 지도읍 김 양식어가 가보니

새벽 5시 고된 작업에도 수출 이바지 자부심 생산 막바지 불구 가격 급등 어민들 “이례적”

물김을 하나하나 손으로 만지며 꼼꼼하게 상태를 살피는 데 집중했다.

위판이 시작되자 김 가공업체 관계자들은 가격을 적은 메모지를 수협 경매사한테 건네기 시작했다. 경매사가 “1번 배 34만5천원, 2번 배 32만9천원, 3번 배 35만4천원.” 외치자 경매를 지켜보던

어민들의 얼굴에는 상기된 표정이 가감 없이 드러났다.

1983년 21세의 나이에 김 양식에 뛰어들어 올해로 41년째 업을 이어오고 있다는 주영길(62)씨는 “김 값이 지금까지 판매했던 가격 중 역대 최고”라며 활짝 웃었다.

주씨와 같은 김 양식 어민 사이에선 이 같은 가격 상승이 유독 뜻 깊다. 과거엔 생산량이 많아도 수요가 안 받쳐줘 과잉 생산으로 값이 하락하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김 가공 공장들이 수출 증가 속 설비를 대폭 확대하고 물량이 들어오는 즉시 수출하다 보니 재고가 없어 가격 오름세가 꺾이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통상 10-12월에만 나오는 곱창 김과 1월 초 생산되는 김 값이 가장 비싸게 거래되는 상황에서 김 생산 막바지에 들어선 3월 말 역대 최고가를

찍은 김 가격에 대해 현장 어민들 사이에서도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쏟아진다.

주씨는 “K-푸드 열풍, 특히 김 열풍으로 전 세계에서 삼각김밥과 냉동김밥을 안 먹는 나라가 없어지는 등 우리가 생산한 김이 널리 알려지다 보니 뿌듯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며 “한 때는 쌀도 사먹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지만 이젠 수출에도 이바지하는 ‘수출 역군’으로 거듭난 것 같아 더할 나위 없이 기분이 좋다”고 미소를 감추지 않았다.

광주시,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 ‘시동’

5년간 532억 투입...자율주행차 기반시설 구축·인력 양성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자율차 부품 소부장 특화단지’에 대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특화단지 조성에 시동을 걸었다.

광주시는 3월 “이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재한 ‘제13차 소부장 경쟁력강화 위원회’에서 광주를 포함한 대구, 부산, 충북, 경기 안성 등 5개 신규 단지에 대한 소부장 맞춤형 특화단지 지원 방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광주그린카진흥원과 함께 ‘자율차 부품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특화단지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광주시는 지난해 7월20일 산업부 ‘소·부·장 특화단지’ 공모사업에서 자율차 부품 분야로 선정됐다.

‘소·부·장 특화단지’ 조성사업은 2028년까지 5년간 약 714만㎡(220만평)를 대상으로 진곡산단은 부품생산 특화, 빛그린국가산단은 인종·완성차 특화, 미래차국가산단은 실증 특화단지로 육성해 미래차 산업 삼각벨트를 완성한다.

특히 미래차 기술 가운데 해외 의존도가 높았던 자율주행 핵심 기술인 통합 제어 시스템에서 인지(센서)·제어·통신 분야의 소재 부품 기술에 대한 자

립화를 앞당길 계획이다. 현재 통합 제어 시스템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5% 수준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올해부터 5년 동안 약 522억원을 투입해 자율주행 기술 연구개발(R&D)과 자율주행 성능 평가 장비 등 기반 시설(인프라)을 구축하고 미래차 전환을 위한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자율주행 통합제어시스템 국산화 및 기술고도화를 위한 연구개발은 지역 선도기업(엔지니어링)인 LG이노텍과 한국알프스가 담당한다.

2개 기업은 ▲자동차 범퍼에 부착하던 ‘인지(센서)’를 자동차 전면 유리에 부착하는 기술 개발 탐지 범위 확대·정

밀도 향상 ▲LV4 이상의 완전 자율주행에서 운전 권한이 사람에게서 기계로 전환하는 것에 대응한 조향 장치 개발 주행·편의·안전 강화 ▲자율주행 중 교통 기반시설과 차량 간 통신에 활용되는 사물간통신(V2X) 통신모듈, 무선 송수신 등 개발에 나선다.

광주시는 2027년 국내 완전 자율주행(LV4) 상용화 목표에 따라 소프트웨어(AI)와 하드웨어를 연계하고 엔지니어링 등의 연구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율주행 통합 제어 시스템 성능평가·인증장비’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용승 인공지능산업실장은 “지역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연구개발 사업을 진행하고 다른 시·도와 광역협력 사업을 발굴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자율차 선도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기 대비 하천재해복구 안전 강화

도, 공정보고회...취약지역 사전 정비 등 당부

전남도는 지난 2일 호우 피해 하천재해 복구 사업 현장에서 공사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기대비 점검 및 공정보고회를 열어 취약지역 사전 정비 및 집중 관리를 당부했다.

보고회에선 현장별 우기 대비 점검과 조치계획 보고, 안전·품질관리 계획 및 시공 적성성 여부, 피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신속집행 달성 목표계획, 현안사항 등을 공유했다.

전남도는 17개 지방하천에 2천85억 원을 들여 호우피해 항구 복구 및 도민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교량 재가설, 제방 축조, 호안 정비, 기타 시설물 정비 등 하천재해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또 중대재해 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된 것과 관련, 현장별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계획 수립과 이행 조치 등 각별한 현장 관리를 당부했다.

송광민 자연재난과장은 “여름철 집중호우 시 지반이 약해져 균열·붕괴 우려가 높아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며 “하천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재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점검과 안전 관리에 힘 쏟고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말했다.

우리 지역 분양 소식

비싸고 불안하기만 한 아파트 가격! 임대료가 답이다

영무에다음

현재 사전 청약 접수중 (특별혜택)

최고의 가치

10년 전세 아파트

1억7천대~

영무에다음 더 퍼스트

페이스트국제학교
2026년초 개교

달빛내륙철도
호재

문의 전화 1533-8321

삶이 예술이 되다

힐스테이트 중외공원

로얄층 마감임박

총 1,466세대 분양 선착순 등·호수 지정 계약중!!

총 1,466세대 84㎡, 102㎡, 112㎡, 157㎡
(2블록 785세대 / 3블록 681세대)

1,466세대 대단지	(구)33평형, 43평형	계약금 5%	중도금 전액 무이자	선착순 동·호지정
----------------	------------------	-----------	---------------	--------------

대표 전화 1533-8316